

한 달 째 공식 ‘輸銀행장’ 돌고 돌아 최희남·유광열

靑, 최희남·유광열 인사검증 진행
기재부 추천 후보 외靑 의중 변수
행장 임명시기는 24일 이후 될 듯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은 행장 자리 한 달 째 비어 있다. 현재 유력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차기 행장 임명 시점은 수은의 국정감사가 끝나는 2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획재정부가 추천한 최희남 KIC 사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두고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달 다크호스로 부상했던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의 경우 기재부 추천 후보자에서 빠지면서 2명으로 압축된 것.

수은 행장은 수은법 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최희남 한국투자공사사장 /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두 후보자는 정통관료 출신으로 전임자 인은 위원장과 같은 ‘국제 금융통’으로 불린다

최 사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기재부의 화자금과·국제금융과 과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장,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차례로 거치고 지난해 3월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올랐다.

유 수석부원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기



수출입은행 전경 /연합뉴스

재부 정책조정총괄 과장, 산업경제과장, 국제금융협력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지난 2017년 11월,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유 수석부원장은 자녀가 지난해 수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부담을 느껴 제

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제3의 인물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기재부가 추천한 후보자 외에도 청와대가 정보를 교류하다 낙점한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 결정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청와대 의중에 따라 후보자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청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추천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재부가 추천한 후보자가 무조건 낙점된다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 행장의 임명시기는 오는 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수은 행장으로 임명될 경우, 수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은 관계자는 “한 달간 공식으로 차기행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임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10월 중순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돼 사실상 임명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수은은 강승중 수석부행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은의 국정감사는 14일로, 종합감사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KEB하나은행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 ‘하나원큐 H2H’ 출시

KEB하나은행은 글로벌 기업을 위한 호스트 투 호스트(Host to Host) 방식의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인 ‘하나원큐 H2H’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글로벌 기업, 특히 외투기업이 H2H 방식의 자금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기업영업그룹 일선 영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은행의 핵심서비스인 H2H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를 출시했다.

호스트 투 호스트(이하 ‘H2H’)란 기업이 은행의 뱅킹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기업 내부의 ERP시스템과 은행의 금융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금융업무를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직원의 실수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현지 직원이 개별적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지 않고, 기업의 본사 ERP시스템과 각 현지의 은행시스템을 직접 연결해 해외 현지법인들의 자금 업무를 본사에서 집중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니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큐 H2H 출시로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해외현지 법인의 자금업무를 본사 시스템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각 해외법인에 대한 전체 현금 흐름 분석과 통합 이동성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홍민영 기자



임영진 “‘3초 경영’ 전략으로 미래형 카드 주도”

(신한카드 사장) (초연결·초확장·초협력)

신한카드 창립 12주년 기념식

‘100% 디지털’ 디클럽 카드 출시 실물 카드 없이 신한페이판서 이용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신한카드가 100% 디지털로 구현되는 혁신 카드를 출시한다.

신한카드는 1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본사 강당에서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개최, 기존 카드업의 틀을 깨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론칭 행사를 가졌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기념식에서 ‘초연결·초확장·초협력’이란 키워드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초연결하고, 한계 없는 업의 초확장을 이루며, 사회와 함께 꿈꾸는 초협력력을 만들어 나가는 신한카드의 ‘3초 경영’ 미래상을 제시했다.

임 사장의 3초 경영 전략은 카드 중심의 고객개념을 확장한 통합 멤버십과 초개인화 마케팅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초연결’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신한카드

모델 육성과 글로벌 포트폴리오 추진을 통해 ‘한계없는 업의 초확장’을 이루고, 그룹과의 원신한(One-Shinhan) 전략, 원컴퍼니(One-Company) 조직문화, 시대가 요구하는 원소사이어티(One-Society) 상생 활동으로 ‘함께 꿈을 키우는 초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는 의미다.

이러한 3초 경영에 입각해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100% 디지털 방식의 플랫폼 멤버십 서비스인 ‘D-Club(Digital Club, 이하 디클럽)’을 출시한다. 디클럽은 카드 신청·발급·이용·상당 등 신한카드 이용 경험의 전 과정을 플라스틱 카드 없이 신한페이판(PayFAN)을 통해 디지털로 구현하고, 절감된 모든 비용을 고객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올해 내 신규 고객 1만명을 선착순 모집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 체험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 이용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난이 의심될 때마다 카드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시큐리티 서비스’나 기존의 신용카드 납부 방법에서 벗어나 매월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일자를 직접 선택할 있는 신개념의 ‘스마트 빌링’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한도 소진율이 50%를 넘으면 잔여 한도를 알려주는 ‘한도잔액 자동 알림’, 카드 디자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셀프디자인’ 등 신한카드만의 디지털 역량을 결집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금번 창립기념식에서 또 다른 혁신 금융서비스인 ‘신용카드기반 송금서비스’와 ‘개인사업자 CB(Credit Bureau)사업’ 론칭 행사를 진행, 초확장과 초협력력을 지향해 나가는 신한카드를 그려냈다.

임 사장은 “역경 앞에서 누군가는 포기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다는 말이 있듯이, 신한카드가 플라스틱 카드라는 사각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한다”며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일류 신한’ 사상에 입각해 초연결·초확장·초협력이라는 3초 경영의 프레임으로 혁신적 금융 리더로서 카드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KB국민은행 연금저축·개인형IRP 펀드 이벤트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금저축펀드 및 개인형IRP 펀드 상품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연금의 온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참여 자산운용사의 펀드 상품 20만원 이상 신규가입 고객 중 자동이체 약정을 2년 이상 하거나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가입 금액에 따라 BBQ 치킨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케이크·커피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연금저축펀드 매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세테크 상품으로, 합산한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돼 노후준비와 연말정산을 동시에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내년부터는 50세 이상 고객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우리은행 주차플랫폼에 금융서비스 협력 나서

파크클라우드·우리카드와 맞손
전용카드 등 서비스 개발 추진

우리은행은 파킹클라우드 및 우리카드와 지난달 24일 금융과 주차플랫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파크클라우드는 클라우드(Cloud) 기반의 주차 솔루션 개발 운영사로, 파킹클라우드의 ‘i-Parking’ (이하 아이파킹)은 주차장 사업자와 주차장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주차장 사업자는 주차장 위치, 빈 주차공간 등의 현황을 아이파킹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하며, 주차장 이용자는 목적지 주변 주차장 검색, 주차장별 여유 공간 실시간 확인, 주차요금 결제 등을 아이파킹 앱에서 할 수 있다.

파크클라우드는 전국에 2000여개의 직영 및 제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주차면수는 37만면, 일일 주차이용대수는 평균 65만대에 이를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주차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등 3사는 아이파킹 회원에게 전용카드 등 금융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홍민영 기자